

내년 F1영암대회 10월 16일 개최

경기장 인증·예산 불투명 중국·인도 대회는 무산 될 수도

포뮬러 원(F1) 자동차 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가 내년에는 10월 16일 영암서킷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경기장 인증과 예산 확보 문제 등이 불투명한 인도와 중국 그랑프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1 월드챔피언십을 총괄하는 FIA(국제자동차 연맹)는 4일 2011년 F1 캘린더를 확정 발표했다.

FIA는 이날 "내년에는 기존의 19개 그랑프리에 인도 그랑프리(10월 16일)를 추가해 20개 그랑프리에서 F1 월드챔피언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F1대회는 3월 13일 바레인을 시작으로 3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4월 말 레이스·인도 그랑프리, 5월 터키·스페인·모나코 그랑프리, 6월 캐나다·유럽 그랑프리 등 상반기에 9개 대회가 열린다.

또 7월에는 영국·독일·헝가리 그랑프리 가 잇따라 열리고, 8월 벨기에 그랑프리, 9월 이탈리아 그랑프리 등 유럽 레이스가 이어진다.

아시아에서도 F1 머신이 달린다. 9월 25일 싱가포르 레이스를 시작으로 10월 9일 일본, 10월 16일 한국, 10월 30일 인도 그랑프리

■ 2011 F1경기일정

일시	장소	일시	장소
3월 13일	바레인	7월 24일	독일
3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	7월 31일	헝가리
4월 10일	말레이시아	8월 28일	벨기에
4월 17일	중국	9월 11일	이탈리아
5월 8일	터키	9월 25일	싱가포르
5월 22일	스페인	10월 9일	일본
5월 29일	모나코	10월 16일	한국
6월 12일	캐나다	10월 30일	인도
6월 26일	유럽(발렌시아)	11월 13일	아부다비
7월 10일	영국	11월 27일	브라질

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인도 그랑프리는 FIA의 서킷 인증을 최종 통과해야 개최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라이선스 기한이 올해로 만료된 중국 상하이 서킷도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FIA는 "상하이 서킷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데다, 경주로 표층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 그랑프리 모두 서킷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예이다.

한편, 중국 그랑프리의 경우 7년 동안 누적된 적자로 인해 내년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날자구나!
은빛 세계로...

일본의 료 아오노가 4일(현지시간) 스위스 사스페 알라랑 빙하에서 열린 스노보드 2010 FIS 월드컵 하프파이프(Half Pipe) 결선에서 공포의 회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출신 지동원 머리로 2골

홍명보호 대전훈 평가전 승리

24년만에 아시안게임 금 메달

홍명보호의 해설사 광양출신 지동원(전남 드래곤즈)이 24년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림포 대표팀은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온나촌 아카마 훈련장에서 치러진 FC 류큐(3부리그)와 비공개 평가전에서 지동원이 혼자서 2골을 몰아쳐 2-1로 이겼다.

30분씩 3파이어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대표팀은 1, 2파이어 동안 득점을 못했지만 3파이어 시작 4분 만에 김주영(경남 FC)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울린 크로스를 지동원이 반대편에서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지동원은 3파이어 21분에 골 지역 중앙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뽑아 승리의 주역이었다. 대표팀은 3파이어 25분에 추격을 허용했지만 동점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했다.

상대팀인 FC 류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대표팀을 이겼던 필리프 트루시가 총감독을 맡고 있다.

지동원은 29일부터 오키나와에서 전술 훈련에 집중해온 대표팀은 5일 대만을 거쳐 대회가 치러질 광저우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이용대의 부활... '금빛 윙크' 기대

광저우 아시안게임 D-7

팔꿈치 부상 털고 스피드·체력 궤도 올라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화산출신 이용대(22·삼성전기)가 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팔꿈치 부상으로 기나긴 슬럼프에 빠졌던 그가 아시안게임을 1주일 앞두고 스피드와 체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 '금빛 윙크'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최정상급이 아시아에 몰려 있는 탓에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의 '골드'는 울림포 이상으로 힘들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 7개

의 금메달이 걸린 배드민턴에서 한국의 금메달 목표는 남자복식과 남자단체전 등 2개.

남자복식은 이용대의 선전 여부에 달려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이효정(29·삼성전기)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용대는 이번 대회엔 팔꿈치 부상으로 정재성(28·상무)과 조를 이룬 남자복식에만 출전한다. 팔꿈치 부상 이후 얼마나 몸상태를 끌어올렸느냐가 관건.

김중수(50)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4일 "이용대의 스피드와 체력은 궤도에 올랐다"

며 "훈련과정도 다른 선수와 똑같이 소화했기 때문에 남자복식에 강적이 많지만 금메달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8강전에서 만나는 중국의 카이운-푸하이펑 조를 가장 큰 고비로 꼽았다. 이들 중국조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2연패를 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조를 꺾는다면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쿠킨킵-탄분형(말레이시아)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원손잡이 탄분형에 대비한 연습을 충실히 해왔다"며 "승부를 5대5 정도

로 보지만 우리의 콤비플레이만 살아주면 금메달이 어렵지 않다"고 자신했다.

이용대는 "복식에만 전념할 수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단체전에서는 준결승 대결이 예정돼 있는 말레이시아전이 최대 분수령. 말레이시아를 이기면 인도네시아-중국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난다.

한편 이용대는 남자 핸드볼 윤정신과 함께 한국선수단 기수로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 금수장관광호텔 525-2111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p>상무점</p> <p>1관 시라노-연애조작단(12세)/심야의FM(18세)</p> <p>2관 경우강호(15세)/데블(15세)</p> <p>3관 부당거래(18세)</p> <p>4관 부당거래(18세)</p> <p>5관 대지진(전제)</p> <p>6관 가디언의전설(전제)/나탈리(18세)</p> <p>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레드(15세)</p> <p>8관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12세)</p> <p>9관 돌이킬 수 없는(15세)</p> <p>10관 불랑남녀(15세)</p>	<p>하남점</p> <p>1관 가디언의 전설(3D)/월스트리트(12세)</p> <p>2관 부당거래(18세)</p> <p>3관 불랑남녀(15세)</p> <p>4관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12세)</p> <p>5관 돌이킬 수 없는(15세)</p> <p>6관 심야의FM(18세)/소외하게 여행하는법(15세)</p> <p>7관 레드(15세)</p> <p>8관 부당거래(18세)</p> <p>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데블(15세)</p> <p>10관 대지진(전제)</p>	<p>MEGABOX</p> <p>M관 부당거래(18세) 최고급관</p> <p>2관 불랑남녀(15세)</p> <p>3관 레드(15세)</p> <p>4관 돌이킬 수 없는(15세)</p> <p>5관 가디언의 전설(3D)(전제)</p> <p>6관 심야의FM(18세)</p> <p>7관 데블(15세)</p> <p>8관 불랑남녀(15세)</p> <p>9관 부당거래(18세)</p>	<p>CINUS</p> <p>1관 부당거래(18세)</p> <p>2관 심야의FM(18세)</p> <p>3관 데블(15세)</p> <p>4관 불랑남녀(15세)</p> <p>5관 레드(15세)</p> <p>6관 월스트리트(12세)/나탈리(18세)</p> <p>7관 가디언의 전설(전제)</p> <p>8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p>
--	--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1544-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